

실제공간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생명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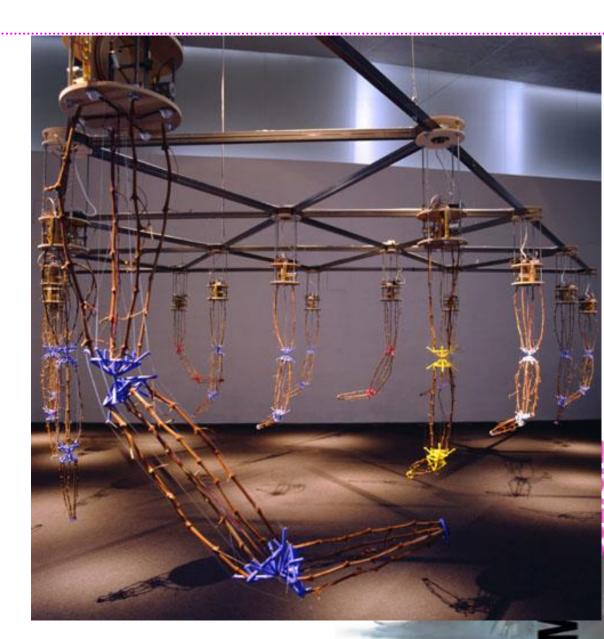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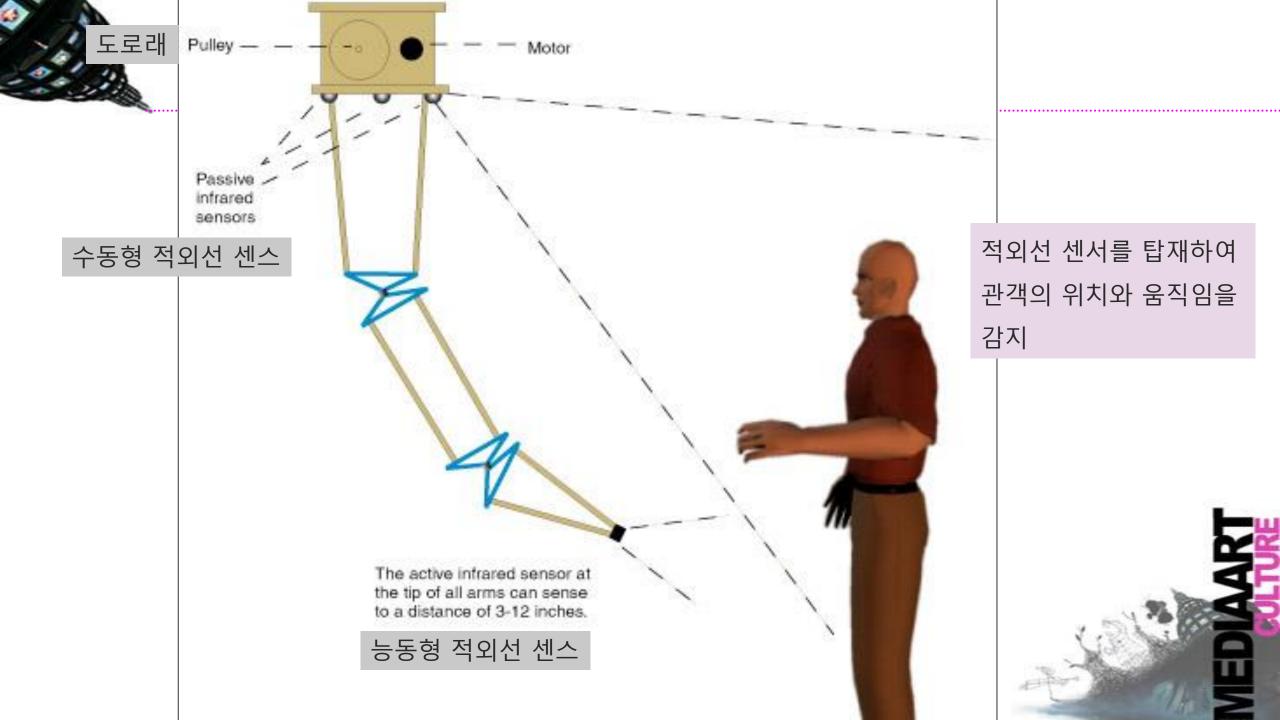
켄 리날도 (Ken Rinaldo)

<Autopoiesis>, 2000

- 15개의 로봇 조각작품 (musical and robotic sculptures)
- 사이버네틱스의 발레 (cybernetic ballet)

https://www.youtube.com/watch?v=3w53KboB-00







<Autopoiesis>, 2000

· 관객과 상호작용 하는 것은 물론, 조각들끼리도 상호작용함.

로봇이 자동성을 넘어 자율성을 갖춘 미적 생산자

- 실제공간에 실체로 존재

- 소통, 대화하는 로봇





테오얀센 (Theo Jansen)

- 세계 최고의 키네틱 아티스트
- 살아있는 생명체 '해변동물(strandbeest, 학명 Animaris)'

◈ 키네틱 아트(Kinetic Art)

- 움직이는 예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품의 총칭





해변동물(strandbeest, 학명 Animaris)





해변동물(strandbeest, 학명 Anim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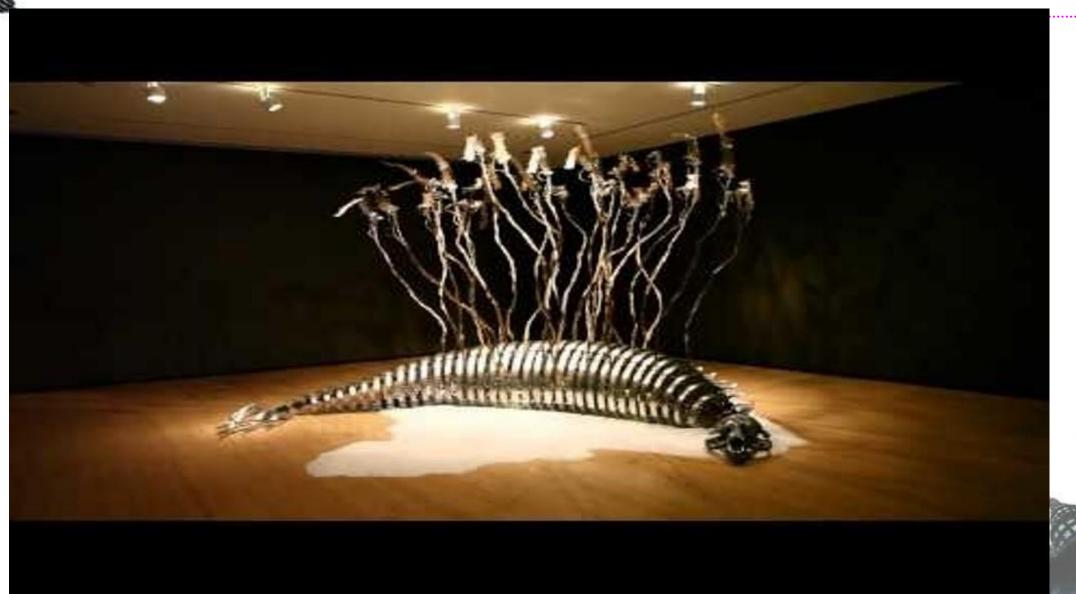
최우람

< 쿠스토스 카붐 custos cavum > 2011

- 기계생명체
- '어바누스', '오페르투스', '에코 나비고', '쿠스토스 카붐'
- 스테인리스 스틸 부속이나 작은 톱니바퀴, 모터
- 로봇생물의 스토리, 설화탄생



최우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B_E6MZfy4o





< 쿠스토스 카붐 custos cavum > 2011

아주 오래 전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두 세계는 작은 구멍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치 숨쉬는 것처럼 서로 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구멍들은 자꾸만 닫히려는 성질이 있어서, 각각의 구멍 옆에는 늘 구멍을 지키는 수호자가 하나씩 있었다. 쿠스토스 카붐(Custos Cavum)이라 불리던 이 수호자는 바다사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커다란 앞니로 구멍을 갉아 구멍을 유지하였다.

쿠스토스 카붐들이 어딘가 새로운 구멍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고, 죽은 듯 자고 있는 그들의 몸통에서는 유니쿠스(Unicus)라 불리는 날개 달린 홀씨들이 자라 났다.

이 유니쿠스들은 쿠스토스 카붐의 몸통에서 떨어져 다른 구멍으로 날아가 새로운 쿠스토스 카붐으로 자라나 새로 생겨난 구멍을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세계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점차 사라지면서 쿠스토스 카붐들은 힘을 잃어갔고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다.

결국 마지막 쿠스토스 카붐마저 죽어가자 마지막 구멍도 닫혀버리고,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졌다.

어제밤 나의 작은 마당에 마지막 남은 쿠스토스 카붐 뼈에서 유니쿠스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세상 어딘가에 다른 세상과 통하는 구멍이 다시 열렸을 때 그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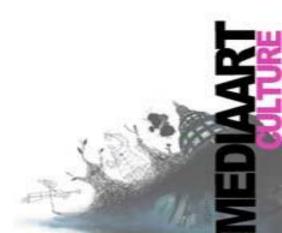


상호작용적 역할

◈ 예술작품

◈ 예술가

◈ 관객



생각해 봅시다

- 기계원리로 작동하는 인공적인 형태의 동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생물체가 아닌 존재는 생명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 생물과 무생물,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 삶이라는 것이 자연생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가?

- ♦ https://www.youtube.com/watch?v=KsqInGMzMD4 (해변동물)
- ♦ https://www.youtube.com/watch?v=XbK0FtpOb1Q (최우람제작과정)
- ◈ https://www.youtube.com/watch?v=uB_E6MZfy4o (최우람인터뷰)

